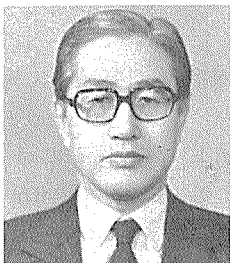


6·25 특집



李 晟 漢 / 서울大 名譽教授 · 工博

6·25 39돌을 맞이하여

6.25를 맞이할 때마다 망각속에 사라져 가는 지난날의 감회를 새롭게 되새기게 되지만 금년에는 작금의 世上物情 때문인지 새삼 착잡한 심정으로 39년전의 6.25 그 당시를 相起하게 된다.

벽찬 光復의 감동 속에서 온 겨레가 새로운 自主 獨立國家 건설의 희망으로 한 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도 잠시였고 돌연한 해방감의 분출로 社會秩序의 문란은 막심한 것이었다. 世界 각처에서 밀려드는 다양한 배경의 귀환동포의 물결 속에서 日本의 戰時統制 經濟體制로부터의 급진적 개방과 南北分斷으로 인한 經濟의 유기적 구조분열 등으로 生産은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물자부족과 物價高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오늘날 상상키 어려운 빈곤 속에서 민생은 심한 동요를 보였으며 생활물자의 결핍은 美軍의 구제물자로 충당 되었다.

게다가 우후죽순격으로 탄생되는 각양각색의 사회단체와 정치단체, 좌익계열 단체의 파괴행위, 좌우익 단체간의 알력, 좌익단체간의 대립 등은 한층 社會를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와 같은 조류는 大學으로도 스며들어 학내에서의 좌우익 반복도 심화되어서 안정된 정상적 학구생활은 기대키 어려웠다.

이와 같은 혼란기는 南韓에 신생정부가 수립되고 좌익단체의 불법화로 점차 정돈기에 접어들게 되었지만 이들 불법화 된 共產勢力이 주축이 된 테러사건과 반란사건으로 社會不安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北韓의 共產政權 수립과 더불어 그들의 대남과괴공작이 노골화 됨에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6.25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과 經濟的 곤경 속에서 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겨우 싹트기 시작한 경제부흥의 의욕과 사회안정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 기습적인 침공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침공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지역은 그로부터 90일간 악몽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남침초기에는 驚訝의 눈으로 그들을 맞이한 南韓사람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분히 복수심을 저변에 둔 잔혹한 숙청작업에 당면하여 경악과 北韓의 共產主義에 대한 혐오감을 내심으로 증대시켜 갔다.

강제적 의용군 전입, 강제 勞力動員이 격화되고 불시야간 가택수색, 강제적인 주거점거 등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學校에의 등교도 피하고 젊은 사람들은 외출을 일

몰후에 하든가 아니면 집안에 숨어사는 일이 많아졌다. 당원 이외에는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는 듯한 압박감으로 불안과 긴장이 가시지 않는 일상생활에 이웃집 사람의 방문조차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말았다. 당의 명령이 즉, 법이 되는 그들의主義는 당명복종을 강요하여 일반 시민의 의사나 생각은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무시되었다. 물론, 戰時中이고 점령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나날은 對戰中의 日本통치 때의 그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재차 서울 후퇴가 中共軍의 개입으로 시작하기전에 일찍부터 南쪽으로의 피난이 개시되었고 釜山은 이들 피난민으로 초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6.25를 통해서 느끼게된 北韓 共產主義는 그때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격차가 나기에 中道的인 사람은 물론 北韓 측에 기울던 많은 사람들과지도 그들로부터 이탈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정은 크게 변모하였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39년전과는 문자 그대로 隔世之感이 있다. 工業生産과 技術面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6.25 당시의 국내 공업생산은 상징적으로 통조림의 빈통을 이용한 것들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半導體産業 등 많은 尖端産業製品이 世界市場에 진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간의 변천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3년 貿易收支도 黑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사실들일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르러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工業生産의 둔화로 國際收支가 다시 赤字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거듭되는 욕구불만의 분출로 데모가 그칠 줄 모르며 공공연한 對北 찬양 등이 서슴치 않고 이루어지는 등 社會不安의 징후

조차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마치 6.25 돌발전과 비슷한 착각을 느낄 때가 있다.

또 다른 한 면으로 본다면 6.25 직전과는 달라진 것도 느낄 수 있다. 즉, 이제는 우리의 經濟規模가 매우 커져서 지난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이다. 그리고 世界的인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生産鈍化의 영향이 그대로 全國의인 규모로 쉽사리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40년대에는 우리의 産業이 世界市場과 깊은 관련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하였었다. 그만큼 이제는 관성이 커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의 의식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6.25때와는 달리 특히 올림픽을 치른 후는 소위 世界 속의 韓國으로 부상되었다. 이제는 低開發國에서 中進國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며, 世界 도처에 韓國産 상품이 퍼져 있다. 그만큼 지난날의 단순한 左右翼의 의식구조 차이 이상으로 다양한 의식구조를 가지게 된 것도 크게 달라진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불안 의식의 요인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상황이 지속되면 6.25 이전 상황으로 복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는 經濟發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生産性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될 수 없다. 先進國 대열을 향한 개발노력 없이는 이제까지 이룩해 온 유사 이래의 성과를 수포로 만들 가능성은 많다. 이미 그 선례를 中·南美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선진기술개발을 통한 經濟發展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욕구분출에 대응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技術發展에 있어서 멈추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다.